



# 하늘꽃 마음꽃

\*발행: 천주교부산교구청소년사목국 \*Tel. 051)629-8740 \*Fax. 051)629-8749 \*편집실: 48317 부산시수영구남천서로32번길21 청소년사목국하늘꽃마음꽃편집실

2024.4.21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저학년 교재  
바로 가기



## 말씀 찾기

제1독서 : 신약 - 사도행전 4,8-12

제2독서 : 신약 - 서간 - 요한의 첫째 서간 3,1-2

복 음 : 신약 - 복음 - 요한 10,11-18

## 오늘의 핵심 말씀

“나는 ○○ ○○다.  
나는 내 ○들을 알고 내 ○들은 나를 안다.”

(요한 10,14)

## Visio Divina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착한 목자>

작자 미상, 300-320, 비오 크리스티아노 박물관, 바티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두 번이나 말씀하시며 강조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삯꾼과 다릅니다.

삯꾼은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당신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다해 양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따라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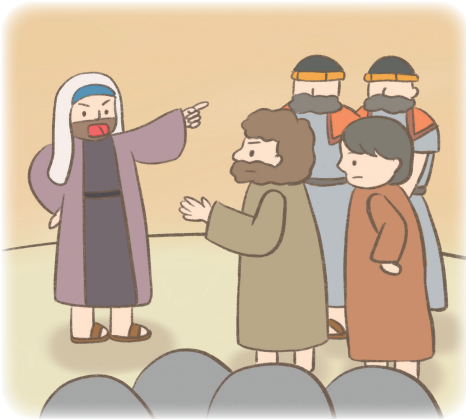
하마 신부님과  
함께 하는



## 말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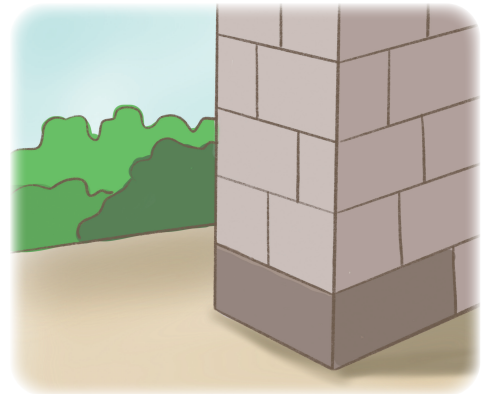
### KEY WORD: 성소

사제, 수도자, 선교사, 혼인 등 다양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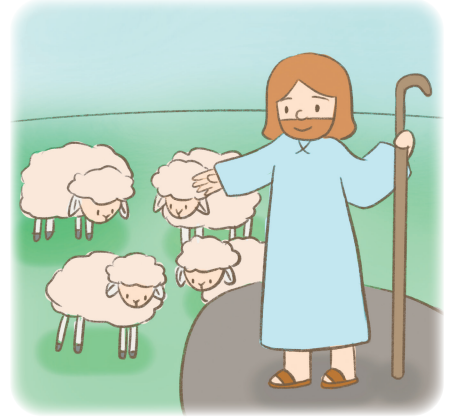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유다 최고 의회에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병든 이들을 고쳐주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최고 의회 의원들은 사도들이 허락 없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에 못마땅해하며  
그들을 신문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라는 머릿돌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죽은 이들의 부활이 이루어지며,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진다는 선포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당신을 '착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착한 목자와는 달리 삯꾼은 자기 목숨만 지키려고 하며,  
이리와 같은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미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도  
세상의 지도자들이 삯꾼과 같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잘 알고, 양들도 목자를 잘 압니다.  
 또한 착한 목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양들까지 돌보고자 하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바쳐 양들을 돌보고 살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양들은 목자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매 순간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제, 수도자, 선교사, 혼인 성소 등 다양한 부르심입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늘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목소리와 거룩한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기쁘게 응답할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 말씀 실천하기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의 목소리를
- 우리의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 가난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을 기억하며
- 형제와 싸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만약 싸웠다 할지라도
- 적은 금액이라도 아끼고 모아서 기부하겠습니다.
-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며 손 내밀겠습니다.
- 귀 기울여 듣고 도와주겠습니다.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오히려 줍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닮아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번 주 실천사항

사제와 수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며  
 하루에 한 번씩 '성소자를 위한 기도'를 바쳐 보아요!

2024 청소년·청년의 해(1)  
**환대와 경청 챌린지!**



청소년사목국에서는 올 한 해 동안 '환대와 경청'을 주제로 한 다양한 사진을 받습니다.  
 개인과 단체 상관없이, 매달 달라지는 주제어에 따라 아이디어 넘치는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보내주신 사진은 다음 달 '하늘꽃 마음꽃'에 게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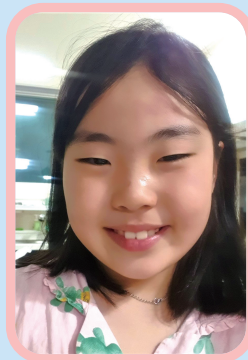
**참여하기~!!  
 Go Go~!**

※ 사진 응모는 교재 게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에 유의하고 보내주세요.

★ **지난 달 주제(환대의 얼굴, 미소) 당첨자 발표!** ★



좌동성당 2학년  
 도유담(스텔라)&이가온(미카엘라)



남양산성당 3학년  
 김아원(올리아)



기장성당 5학년  
 한연우(라파엘)

♥ 당첨된 친구들에게는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려요.  
 참여해주신 모든 친구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모 부탁드립니다! ♥

★ 이번 달 주제: **세계 어린이의 날**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4년 5월 25~26일을 '제1회 세계 어린이의 날'로 제정하시면서,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인해 희생되고 어린 시절을 빼앗긴 아이들을 잊지 말자고 말씀하셨어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친구들, 전쟁과 폭력으로 희생되는 친구들, 난민이 되어 부모와 헤어지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요?

(기도문이나 그림, 기도하는 모습,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친구들의 아픔을 알리고  
 연대를 요청하는 피켓팅 등)

이번 달 주제에 맞는 사진을 카카오톡 채널 '천주교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으로  
 본당, 학년, 이름(세례명), 연락처,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5월 5일(주일)까지** 보내주세요.



채널 바로가기

모바일 체크  
 3/31 당첨자

옥동성당 1학년 김자겸(루카), 양산성당 3학년 기성준(안토니오), 사직대건성당 4학년 원하윤(클라라),  
 좌동성당 5학년 박이현(도로테아), 물문대성당 6학년 최연웅(유스티노)

※ 이번 주 '모바일 체크'는 '환대와 경청 챌린지' 응모 사진 발표로 인하여 쉽니다.